

都賣物價-消費者物價의 乖離와 産業別 要素集約度の 差異

鄭 基 俊

〈目 次〉

- I. 序 論
- II.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의 類別對比
- III. 要素集約度, 要素價格의 變動과 物價指數
- IV. 例
- V. 結 論

I. 序 論

우리나라의 物價現象 중에서 1965年 이후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 이전의 기간과는 달리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의 上昇率을 비교해 볼 때 持續적으로 消費者物價의 上昇率이 더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1964年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현상이 支配적이었던 것이다. 本稿는 이와 같은 物價의 特徵인 變動樣態의 實相을 본 후 그 要因을 産業別 要素集約度の 差異와 관련시켜 考察해 보고자 한다.

分析에 사용된 統計는 都賣物價指數로 韓國銀行의 「全國都賣物價指數」를 使用하고, 消費者物價指數로는 「全國消費者物價指數」가 바람직하나, 系列이 짧기 때문에 대신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의 「서울消費者物價指數」를 使用하기로 한다. 比較可能한 年度에 대해서 「全國」과 「서울」을 比較할 때 兩指數의 차이는 별로 없으므로, 全國都賣物價와 서울消費者物價를 對比하여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의 차이를 分析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본다. 以下에서 말하는 都賣物價指數는 全國都賣物價指數이며, 消費者物價指數는 서울消費者物價指數이다. 그리고 基準年度가 다른 指數系列의 連結은 單純比例法을 썼다.

〈표 1〉에 의하면 1960年 이후 1972年 9月까지 10여년 간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는 그 平均인 變化率이 거의 같다. 그러나 이 기간을 1965年 以前과 以後로 나누면 그 變動樣相이 判異함을 볼 수 있다. 〈표 1〉의 마지막 列을 보면, 1964年 이전의 都賣物價의 上昇

〈표 1〉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의 變動推移

(1970=100)

	都賣物價指數 (W)	消費者物價指數 (C)	ΔW	ΔC	$\Delta W - \Delta C$
1960	31.0	29.1	—	—	—
1961	35.1	31.4	4.9	2.3	+2.6
1962	38.4	33.6	3.3	2.2	+1.1
1963	46.3	40.2	7.9	6.6	+1.3
1964	62.3	51.4	16.0	11.2	+4.8
1965	68.5	58.4	6.2	7.0	-0.8
1966	74.6	65.4	6.1	7.0	-0.9
1967	79.4	72.5	4.8	7.1	-2.3
1968	85.8	80.6	6.4	8.1	-1.7
1969	91.6	88.7	5.8	8.1	-2.3
1970	100.0	100.0	8.4	11.3	-2.9
1971	108.6	112.3	8.6	12.3	-3.7
1972.9	125.7	129.0	17.1	16.7	+0.4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및 『통계월보』

速度는 同期間의 各年度에 있어서의 消費者物價上昇速度보다 빨랐고, 반대로 1965年以後 1971年까지는 모든 年度에 있어서 都賣物價의 上昇速度가 消費者物價의 上昇速度보다 느렸다. 그리하여 1960~1964年의 期間에 都賣物價는 100%가 上昇하였는데, 消費者物價는 77%만 上昇하였으며 1965년부터 1972年 9月까지의 期間에는 반대로 都賣物價는 102%가 오른 반면에, 消費者物價는 151%가 뛰어 오른 것이다.

以下에서는 편의상 1960年, 1965年, 1970年 및 1972年 9月의 指數, 그리고 그 各期 사이에 있어서의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의 指數對象品目的 類別 變化的 推移를 對比해 봄으로써 物價變動의 特徵과 要因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II.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의 類別對比

總指數는 消費者物價指數를 食料品費, 住居費, 光熱費, 被服費 및 雜費로 分類하였으며, 都賣物價指數는 이에 對應하여 食料品, 建築材料, 燃料 및 電力, 纖維 및 同製品, 그리고 其他로 分類하여 各項目을 서로 比較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우선 總指數를 比較하여 보면 <표 2>에서 1970年을 기준으로 할 때 消費者物價指數는 都賣物價指數에 비하여 1960년에는 1.9포인트가 낮았다. 그리고 이는 1965년에는 10.5포인트가 낮음으로써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 격차가 계속 좁혀져, 1972年 9月에는 오히려 消費者物價指數가 都賣物價指數보다 3.3포인트가 높아지는 逆轉

<표 2>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의 類別 指數對比

(1970=100)

	1970加重值	1960	1965	1970	1972.9
總指數(都)	1000.0	31.0	68.5	100.0	125.7
總指數(消)	1000.0	29.1	58.0	100.0	129.0
食料品(都)	313.0	24.4	60.4	100.0	138.5
食料品費(消)	443.8	25.6	58.4	100.0	138.6
建築材料(都)	106.6	34.0	66.7	100.0	111.2
住居費(消)	99.8	36.9	59.4	100.0	119.1
燃料및電力(都)	117.6	32.9	63.1	100.0	141.1
光熱費(消)	52.7	33.4	58.4	100.0	120.0
纖維및同製品(都)	125.9	31.2	73.5	100.0	122.3
被服費(消)	103.3	32.6	67.6	100.0	120.1
其他(都)	336.9	35.4	76.6	100.0	114.3
雜費(消)	300.4	30.6	54.0	100.0	122.8

자료: <표 1>과 같음.

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1965年 期間 中에 都賣物價는 121.0% 上昇하고, 消費者物價는 99.3% 上昇함으로써 都賣物價의 上昇率이 높았으나, 그 後의 期間에 있어서는 消費者物價의 上昇率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이와 같은 上昇率의 차이를 야기한 要因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各 指數를 위와 같이 分類해서 얻은 項目끼리 比較해 보기로 한다.

<표 2> 및 <표 3>에서 食料品과 食料品費를 比較해 보면, 總指數에서의 加重值가 食料品費 쪽이 높다. 즉 食料品系統의 加重值는 消費者物價 쪽에서 더 크다. 그러므로 食料品과 食料品費의 價格變動率이 同一하다면 總指數에 미치는 영향은 消費者物價 쪽이 더 크게 된다.

<표 3>에 의하면, 1960~1965年 期間 中에 都賣物價인 食料品の 價格變動은 消費者物價인 食料品費의 價格變動보다 컸다. 그러나 消費者物價인 食料品費의 加重值가 훨씬 더 크므로 食料品系統의 價格變動이 總指數를 上昇시킨 정도는 消費者物價 쪽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食料品과 食料品費의 價格變動率의 차이가 없었더라면 總消費者物價의 上昇에 대한 寄與度는 훨씬 더 컸을 것이며, 따라서 總指數에 있어서의 都賣物價와의 격차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1960~1965年 期間 中의 食料品과 食料品費의 價格變動은 總指數의 特徵的 變動에 加勢하였다.

한편 1965~1970年 期間에는 食料品費의 上昇率이 食料品の 價格上昇率보다 훨씬 큼으

〈표 3〉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의 類別 上昇率 對比

(단위 %)

	1970加重値	1960~1965	1965~1970	1970~1972.9
總指數 (都)	1000.0	121.0	46.0	25.7
總指數 (消)	1000.0	99.3	72.4	29.0
食料品 (都)	313.0	147.5	65.6	38.5
食料品費 (消)	443.8	128.1	71.2	38.6
建築材料 (都)	106.6	96.2	49.9	11.2
住居費 (消)	99.8	61.0	68.4	19.0
燃料및電力 (都)	117.6	91.8	58.5	41.1
光熱費 (消)	52.7	74.9	71.2	20.0
纖維및同製品(都)	125.9	135.6	36.1	22.3
被服費 (消)	103.3	107.4	47.9	20.1
其他 (都)	336.9	116.4	30.5	14.3
雜費 (消)	300.4	76.5	85.2	22.8

자료 : 〈표 2〉에서 作成.

로써 높은 加重値와 相乘作用을 하여 消費者物價指數를 높이는 데 크게 加勢하였다.

1970~1972年 9월까지는 食料品과 食料品費의 上昇率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加重値의 차이는 總消費者物價를 더 높이는 데 加勢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 都賣物價 중의 建築材料和 消費者物價 중의 住居費를 比較해 보면, 食料品系統에서 보다 더욱 뚜렷하게,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의 特徵的 變動에 加勢하고 있다. 즉 1960~1965年 期間에는 建築材料는 96%가 오르고, 住居費는 61% 밖에 오르지 않음으로써 都賣物價의 더 큰 上昇에 寄與하고 있고, 1965~1970年 期間 중에는 반대로 建築材料는 50%가 올랐는데, 住居費는 68%나 오름으로써 消費者物價의 더 큰 上昇에 寄與하였다. 그리고 1970年 이후에도 住居費의 더 큰 上昇은 消費者物價의 上昇에 加勢하였다.

都賣物價의 燃料 및 電力과 消費者物價의 光熱費를 比較해 보면, 1960~1965年의 期間과 1965~1970年 期間에는 위에서 본 建築材料 및 住居費의 比較에서와 같은 형태의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그 경우보다 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1970~1972年 9월까지의 기간에는 그 關係가 逆轉되어 나타나고 있다.

纖維 및 同製品과 被服費의 關係를 보면 1960~1965年 期間에는 都賣物價인 섬유 및 同製品의 價格의 上昇率이 被服費의 상승율보다 높고 1965~1970年 期間에는 그 반대가 되어 總指數의 變動方向과 一致한다. 그러나 1970年 이후에는 總指數의 變動과 反對方向으로 變動하고 있다.

都賣物價 중의 其他와 消費者物價 중의 雜費를 비교해 보면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간의 변동형태에 있어서의 차이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全期間 중에 總指數와 같은 방향의 변화를 보인 것은 물론, 그 振幅이 대단히 크다. 그리하여 <표 2>에 의하면 1960년에 거의 14 對 12이었던 其他와 雜費間的 相對價格이 1965년에는 14 對 10 정도로 크게 바뀌고 또 다시 1970년에는 14 對 14로 되고, 그리고 1972年 9月에는 14 對 15로 되었다.

以上에서 우리는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를 몇개의 項目으로 分類하여 同類項끼리 짝지어 이를 比較함으로써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의 變動樣態의 特徵을 야기하는 要因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比較를 한 것은 각 짝의 比較는 同類項끼리의 比較이므로, 그 相互變動形態는 類似하고 따라서 總指數의 變動樣態의 差異는 相異한 짝들간의 變動形態의 差異로 說明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結果는 기대했던 것의 거의 正反對였다. 즉 比較된 모든 짝에서 1960~1965年 및 1965~1970年의 期間에서의 짝 안에서의 변동은 總指數의 변동과 같은 樣相을 보여 주었고 1970年 이후에만 약간의 不一致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각 짝은 전체의 縮小版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방법으로는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의 變動樣態의 差異를 說明할 수 없다.

III. 要素集約度, 要素價格의 變動과 物價指數

그러나 여기서 注目할 것은 위의 여러가지 比較에서 方向의 差異는 별로 없으나 程度의 差異는 비교적 크다는 사실이다. 즉 같은 짝에 있어서의 增加率의 차이를 보면, 食料品과 食料品費의 差異, 燃料 및 電力과 光熱費의 差異는 작고, 建築材料와 住居費의 差異, 其他와 雜費의 差異는 크다. 이 程度의 차이를 야기하는 要因이야말로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의 變動樣態의 차이를 야기하는 要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程度의 差異를 야기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要素集約度와 要素價格의 變動으로 說明할 수 있다고 본다. 都賣物價중의 食料品보다는 消費者物價중의 食料品費를 비교하면 食料品費의 勞動集約度가 더 크다. 왜냐하면 食料品費에는 적어도 商業서비스가 더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勞動集約度の 차이는 이 경우에 비교적 작다고 볼 수 있다. 都賣物價중의 建築材料가 住居費로 되기 위해서는 各種 建築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住居費의 勞動集約度는 높다. 그리고 建築材料와 住居費의 勞動集約度の 差異는 食料品과 食料品費의 差異보다 훨씬 크다. 마찬가지로 論理에서, 燃料 및 電力보다 光熱費의 勞動集約度는 클 것이지만 별로 차이는 없을 것이다. 都賣物價중 「其他」에는 紙類, 고무製品, 化學製品, 合成

樹脂製品, 金屬製品, 機械 및 同部分品, 雜品 등이 포함되는데, 消費者物價 중 「雜費」에는 保健醫療費, 美容衛生費, 交通費, 通信費, 教育費, 文房具, 教養 娛樂費, 담배,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其他와 雜費 사이의 勞動集約度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또 우리나라 産業, 특히 製造業은 많은 原資材를 輸入에 의존하므로, 費用을 勞動費用과 物的費用으로 나눈다고 할 때, 勞動集約的인 産業은 資本集約度가 낮을 것인데 이는 輸入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결국 「輸入集約度」가 낮다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勞動集約度가 낮은 産業은 輸入集約度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표 4>와 <표 5>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이처럼 勞動과 輸入은 韓國産業에서의 2大 生産要素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앞에서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를 項目別로 짚어내서 찾아 낼 수 없었던 物價變動의 特徵을 야기하는 要因을 各項目의 勞動集約도와 輸入集約度, 그리고 그 價格인 賃金率과 換率의 變動에서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것이다.

IV. 例

위의 假說을 뒷받침하는 例는 어느 項目으로도 좋겠으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分類된 要素集約도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교적 對應關係가 明確한 都賣物價의 「其他」 對應部門과 消費者物價의 「雜費」 對應部門의 要素集約도를 구하고, 이를 써서 위의 假說의 妥當性を 檢定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要素集約도는 投入產出表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要素投入係

<표 4> 「其他」 對應部門의 要素投入集約度 (1968年) (단위 %)

部 門	勞 動	輸 入	部 門	勞 動	輸 入
紙 類 製 品	19.1	44.6	銃 鐵 · 製 鋼	19.8	48.8
革 製 品	32.1	30.0	鐵 鋼 1 次 製 品	21.7	38.8
고 무 製 品	15.4	61.8	非 鐵 金 屬 1 次 製 品	19.7	43.5
基 礎 化 學 製 品	21.2	38.2	金 屬 2 次 製 品	25.0	43.2
其 他 化 學 製 品	18.4	41.5	一 般 機 械	25.6	42.9
化 學 肥 料	28.6	21.1	電 氣 機 械	21.7	36.6
輸 送 用 機 械	24.8	41.2	其 他 製 造 業	22.8	38.2

자료 :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公共料金 및 主要料金引上에 이 國內物價에 미치는 波及效果』(1972.12), pp. 55-60.

〈표 5〉 「雜費」對應部門의 要素投入集約度
(1968年) (단위 %)

	勞 動	輸 入
衛 生	86.5	20.0
通 信	38.4	11.1
鐵 道	38.2	15.1
陸 運	27.7	24.6
其他서어비스	47.0	16.8

자료 : 〈표 4〉와 같음.

數가 아닌 直接 間接으로 所要되는 綜合的 要素集約度여야 할 것이다.⁽¹⁾ 〈표 4〉 및 〈표 5〉는 이 방면의 既存研究結果에서 引用한 것이다.

이 두 표에는 「其他」對應部門과 「雜費」對應部門의 要素集約도가 提示되어 있는데, 「其他」對應部門은 전체적으로 輸入集約的임을 알 수 있으며 「雜費」對應部門은 勞動集約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要素集約度の 差異가 어떻게 相異한 價格變動을 야기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 要素들의 價格 즉 賃金率과 換率의 變動이 어떠했는가를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要素集約度の 차이가 있더라도 賃金率의 變動과 換率의 變動이 똑같이 일어났다면 生産物의 相對價格은 거의 不變일 것이기 때문이다.

賃金率은 製造業중사자의 賃金を 基準으로 할 때 1960年의 月 2,330 원에서 1965년에는 4,600원으로 약 2 배가 되었고, 1970년에는 14,150 원으로 다시 3 배가 되었으며, 1972年 8 月에는 19,910원으로 다시 약 40%가 올랐다. 한편 換率은 1960年의 美貨 1 달러당 65 원에서 1965 年에는 265 원으로 거의 4배가 되었으며, 1970 年에는 305 원으로 5 年 間에 약 20%밖에 오르지 않았으며, 그 후 2 차에 걸친 上向操作으로 1972 年 9 月에는 400 원으로

〈표 6〉 賃金率과 換率의 上昇率 (단위 : %)

	1960~1965	1965~1970	1970~1972.9
賃 金 率	97	208	41 ¹⁾
換 率	294	19	31

주 : 1) 1972 年 8 月까지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월보』 및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월보』

(1) 勞動, 輸入등을 原初的 投入으로 하는 開放模型에서의 逆行列係數로부터 이런 性質을 가지는 集約도를 구할 수 있다. 具體的인 內容은 〈표 4〉 및 〈표 5〉의 資料를 參考하기 바란다.

그 뒤 약 30%가 더 올랐다. 이와 같이 不規則한 賃金率과 換率의 變動은 <표 6>에서 比較되고 있다.

즉 1960年代의 前半에는 賃金率이 安定된 반면 換率의 上昇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後半에는 반대로 換率이 安定되고 賃金率의 上昇이 빨랐다. 그리고 1970年 이후에는 賃金率과 換率이 다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生産物의 價格에서 賃金率과 換率이 決定的인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1960~1965年 期間에는 勞動集約的인 項目의 價格등귀가 輸入集約的인 項目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며, 반대로 1965~1970年의 期間에는 勞動集約的인 項目의 價格上昇이 훨씬 더 빨랐을 것이며, 그리고 1970~1972年 9月의 期間에는 勞動集約的인 項目의 等귀율이 약간 높았을 것이다.

위에 說明한 假說이 얼마나 現實的인 說明力이 있는가를 以上の 資料를 근거로 하여 檢定해 보기로 하자. 우선 <표 4> 및 <표 5>의 要素集約度 中에 輸入集約度는 勞動部門을 內生部門으로 하여 計算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높게 평가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과 部門內 産業의 比重을 고려하여 都賣物價中 「其他」 對應部門의 勞動과 輸入의 集約度를 각각 0.20과 0.35로 가정하고, 消費者物價 中 「雜費」 對應部門의 勞動과 輸入의 集約度는 0.40와 0.15로 가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표 6>의 各期間의 賃金率의 變動率은 각각 100%, 200% 및 40%, 그리고 換率의 變動率은 각각 300%, 20% 및 30%로 하여 計算을 간단하게 하고자 한다.

이 計算을 行列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egin{array}{cc}
 & \begin{array}{cc} \text{要素集約度} & \text{要素價格變動率} & \text{物價變動率} \end{array} \\
 \begin{array}{cc} \text{其} & \text{他} \\ \text{雜} & \text{費} \end{array} & \begin{array}{cc} \left(\begin{array}{cc} 0.20 & 0.35 \\ 0.40 & 0.15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cc} 100 & 200 & 40 \\ 300 & 20 & 30 \end{array} \right) = & \left(\begin{array}{ccc} 125 & 47 & 18.5 \\ 85 & 83 & 20.5 \end{array} \right)
 \end{array}
 \end{array}$$

그리고 이 計算値를 實際値와 比較한 것이 <표 7>이다.

<표 7>에 의하면 우리의 간단한 假說이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의 變動方向과 크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實際値와 計算値 間의 차이는 우리가 10여년 간

<표 7> 變動率의 實際値와 計算値의 比較 (단위: %)

		1960~1965	1965~1970	1970~1972.9
其他	實際 值	116.4	30.5	14.3
	計算 值	125	47	18.5
雜費	實際 值	76.5	85.2	22.8
	計算 值	85	83	20.5

註: 實際値는 <표 3>에서 引用.

의 要素集約度の 變動이 없고, 勞動生産性的 變動이 없다는 가정을 暗默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크기가 작은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V. 結 論

우리는 以上の 根據에서 다음을 導出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物價變動의 樣態는 勞動賃金率과 換率에 의해서 대부분을 說明할 수 있다.

둘째, 그 간의 經濟成長과정에서 產業의 要素集約度の 變動과 勞動生産性的 變動은 적어도 物價變動에는 明確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세째, 經濟成長에 따라 所得이 增加하면 英鎊의 法則에 의하여 消費支出 중에서 食料品費가 차지하는 比重이 낮아질 것이며 반대로 雜費의 比重은 높아질 것인데, 이는 消費者物價에서의 勞動의 相對的 比重이 都賣物價에 비해서 더 커짐을 의미한다.

네째, 消費類型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開放體制에 있어서는 貿易에 의하여 要素價格도 國際間에 平準化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現在 相對的으로 低位에 있는 賃金率은 적어도 換率보다 빠른 率로 登귀할 것이므로, 相對的으로 勞動集約的인 消費者物價의 上昇속도는 相對的으로 輸入集約的인 都賣物價指數보다 더 빠른 速度로 變動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輸入代替가 활발히 進行되어 輸入依存도가 낮아지고 現在 輸入集約的인 產業이 綜合的으로 勞動集約的인 產業으로 轉換한다면 都賣物價가 더 빠른 速度로 登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 政府가 賃金引上을 強力히 통제하고 換率의 引上을 許容하는 경우 消費者物價가 더 빠른 速度로 登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여섯 가지 가운데, 첫째에서 네째까지는 가능성이 매우 크고, 다섯째와 여섯째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둘째의 사태와 세째의 사태가 동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 때 都賣物價上昇보다 消費者物價上昇이 훨씬 더 빠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것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의 物價變動樣態는 1960~1965年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려우며, 반대로 1965年 이후와 같은 사태가 支配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또 모든 先進國이 經驗한 바이기도 하다.

〔筆者: 서울대학교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대학교 商科大學 專任講師〕